가정예배 안내서

2

1994

충현의 만나

이사야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해가 되도록
2.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3.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신성종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 성도들이 자라가도록

충현의 만나

1994년 2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이사야서 서론

이사야서의 히브리어 표제는 주인공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예사야후', 또는 그 단축형인 '예사야로' 붙여졌다. 이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야샤'와 여호와를 뜻하는 '야후' 또는 '야'가 결합된 것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책 이름처럼 이사야서의 주제는 '심판과 은혜를 통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며, 본 서의 기록 목적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사야의 사역은 유다왕 웃시야(BC 767-739) 통치 말기부터 시작하여 요담(BC 731-715)의 시대를 거쳐서 히스기야(BC 715-686)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이사야의 예언 중에는 이사야 자신의 활동 당시에 있었던 일(1-39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사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 관한 이야기들(40-66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 사상, 메시야 사상, 하나님의 거룩성, 여호와의 고난 받는 종과 같은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들이 다루어져 있다. 특히 본 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을 보면 이사야가 마치 신약의 선지자처럼 보일 정도로 그 예언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 이사야서의 주요 낱말은 '구원'이며 핵심구절은 9장 6절과 53장 6절이라고 할 수 있다.

1 (화)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찬송 / 410장 본문 / 사 31:1-9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31:5)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자는 세상이 아닙니다. 본문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고 멸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마치 적으로부터 어미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권능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힘을 자랑하지만 사랑이 모자랍니다. 또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지혜가 모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이 구원을 받는 자마다 여호와의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자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기도 /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을 잊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완전한 통치자의 다스림 (수) 2

찬송 / 204장 본문 / 사 32:1-7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32:4)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명령하고 있는 왕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더럽고 어리석고 악독해질 것이고 악마가 속삭이는 대로 하는 자는 잔인하고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예수 따라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고 사는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광풍을 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폭우를 가리울 수 있고 마른 땅에 냇물과 같고 곤비한 땅에 그늘과 같은 분이어야 합니다. 그 분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의 통치를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영적인 시야가 밝아집니다(3절). 둘째로 신령한 귀가 열립니다(3절). 셋째로는 침착하고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4절). 넷째로는 신령한 입이 열립니다(4절). 마지막으로 명철한 사람이 됩니다(5절).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와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분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마다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조급한 자가 변하여 침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고, 오늘 하루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기도 /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3 (목) 성신을 부어주시리니

찬송 / 172장 본문 / 사 32:9-20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32:15)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것이 성취될 때마나 나름대로의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불행이라고 생각되면 술이나 마약 등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잊게 할 뿐입니다. 얼마전에 장안에 화제가 되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마약을 접했다가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사용하다가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성령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를 잃은 아픔 속에서 수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별다른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고 좌절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신을 부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성신이 임할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삼림으로 됩니다. 영원한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신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 기도 /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모든 목회비전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력과 체력과 영력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보배 (금) 4

찬송 / 82장 본문 / 사 33:1-16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33:6)

쌩떽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란 책을 보면 순수성을 잃어버린 어른들의 사고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어린 왕자는 어른들의 생각이 얼마나 이해타산에 젖어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순수하지 못함 속에 파묻혀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고발하는 글입니다. 현대인들은 보이는 것을 너무나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보배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기 보다는 마음 속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 보배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해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마음에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보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안을 주며, 궁극적으로 구원을 베풀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일진대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귀중한 보배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진정한 보배를 알면서도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보배를 소유하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 기도 /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좇아가다가 그것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을 복주사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게 하셔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모두 되게 하소서.

5 (토) 여호와는 우리의 왕

찬송 / 55장 본문 / 사 33:17-24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33:22)

구약의 유대인들은 때로 하나님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생각하였고, 이 세 가지 특성이 한 사람에 의하여 완전히 구현될 수 있는 통치자가 메시야로서 세상에 오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의 재판장이요 입법자이며 동시에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장들은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그 분만이 완전히 공정한 선고를 내리실 수 있는 최고의 조정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종말기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재판을 하실 것입니다(참조, 마 25:32; 계 20:4).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그 분은 재판장이신 동시에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는 패역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어, 이 패역한 시대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새 힘과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셔서 94년 한 해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소서.

심판의 칼 (주일) 6

찬송 / 217 장 본문 / 사34:1-7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34:2)

본문은 세상의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와 그 참혹한 파멸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 심판은 우주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우주의 천체들에 이르기까지 전무후무한 파괴가 시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있을 대환난에 대한 말씀(마24:3-31)은 본문에 나타난 환난을 더 구체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가 본 계시 가운데에서 본문에 나타난 대환난의 재앙들에 대하여 그 실제적인 집행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놀랄 만큼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우주의 천체들에게 내릴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하늘에 상달된 땅의 범죄가 원인입니다.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의 삶이 회개하여 개선될 가망이 없고 죄악이 관영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갈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로서 염색 공업이 발달된 도시로서 '화려한 의복'을 생산해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는 교만과 사치와 음란의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풍요 속에서 인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판을 향하여 달음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호화롭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경제의 원리는 심판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기도 / 심판을 향해 달음질하는 이 세상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어 나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게 하소서. 모든 당회원들이 말과 행위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서 교회에 공의를 행하게 하소서.

7 (월) 말씀의 성취

찬송 / 421 장 본문 / 사 34:8-17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34:16)

본문은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에돔이 멸망한 후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된 책을 읽게 될 것이며, 기록된 예언대로 오류나 모순없이 모든 일이 에돔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두루마리 책으로 남겨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책으로 보존되어 후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살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며,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성도들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경을 대하여야 할까요? 성경을 읽되 '자세히 일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대할 때 오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생명력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되며, 앞으로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도취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여주어야 합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말씀뿐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인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으며 짝이 없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라는 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실천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생활화가 없는 신앙은 참된 짝이 없는 신앙입니다.

▶ 기도 /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모든 직원들이 다윗처럼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화) 8

찬송 / 248장 본문 / 사 35:1-10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사35:2)

어거스틴(Augustine)은 처음에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이 야만인들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사상을 전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의 유명한 신국론(神國論)이란 저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서로 투쟁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존재이지만 지상의 나라와의 투쟁 가운데 있기에 아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이 지상 나라의 도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지만 그 영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짐작만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읍니다. 본문을 두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10)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롬 8:24,25)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광야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이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믿음을 주소서. 교회의 일꾼들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고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치 아니하게 하소서.

9 (수) 성도를 향한 악인의 희롱

찬송 / 342장 본문 / 사 36:1-10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36:1)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신앙으로 인해 악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든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 교회는 약삭빠른 성도들이 많아서인지 신앙 자체의 문제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로 인해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한 경험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 앗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로부터 견디기 힘들 정도의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제로 인해 악한 자들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 말고 도리어 그들의 도전이 없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의 자녀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신앙에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도전에 조금도 동요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지속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씩 승리의 고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사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굳센 믿음을 주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처음과 끝에 동일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여 연말에 알찬 보고서를 쓰게 하소서.

악인의 유혹 (목) 10

찬송 / 359장 본문 / 사 36:11-22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36:13)

본문은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유혹은 모든 악한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의뢰하지 못하게 합니다(14). 둘째로는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16).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앗수르 왕이 유다 백성을 풍족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은 겉으로는 선한 말과 듣기에 좋은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의 유혹에 성도가 넘어가면 곧바로 그들의 감추어진 발톱이나 이빨에 찢겨지거나 삼켜질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란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기는 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임을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잠 2:16-20). 그런데 문제는 악한 자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종교에서는 요가나 고행과 같은 수행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 5:8,9)

우리는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악인의 유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찬양대원들의 찬양으로 영혼이 소성케 되며 마음과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11 (금) 어려움을 당할 때

찬송 / 342장 본문 / 사 37:1-3

『.....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37:6)

앗수르 왕은 유다 침공시에 랍사게라고 하는 부하를 시켜 유다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 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는 먼저 회유작전으로 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의 신복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허황된 말을 더 이상 듣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사정을 말한 후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유다의 승리를 예언했고 앗수르 왕의 철저한 패배를 아울러 증거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앗수르의 산헤립은 얼마 안가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을 찾을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하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한 것처럼 주의 종들을 찾아 기도를 요청하면서 지도와 상담을 받는 것도 의외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때로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히스기야 왕처럼 도움을 받아야 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먼저 깨어져 사랑의 눈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기도하며 이끌 수 있도록 힘주소서.

히스기야의 기도 (토) 12

찬송 / 344장 본문 / 사 37:14-29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37:17)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훼방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사로 압니다. 앗수르 왕 산헤립과 그의 부하 랍사게가 이와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이렇게 도전해오는 적국의 세력을 막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들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 놓고 하나님을 훼방하고 있는 적군을 물리쳐 원수를 갚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장면은 기도의 교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글을 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기도란 내가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는 적국을 쳐부수어 달라고 함으로써 이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는 골리앗을 향해 외치는 모습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신뢰성이 기도 응답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을 훼방하는 우리 나라의 불신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가 이 땅 위에 정착되게 하여 주소서. 각 교구마다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13 (주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찬송 / 464장 본문 / 사 37:30-38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37:35)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구약은 말 그대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길은 이 언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계시하시며 축복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의 제일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통해 언약이 완성이 되고 계시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혈통을 지키시며 보호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다윗의 왕가인 유다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한 공로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 가운데 보호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적인 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언약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인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살아갑시다. 또한 사망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남녀전도회가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소서.

질병과 기도 응답 (월) 14

찬송 / 484장 본문 / 사 38:1-8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사 38:1)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지 14년에 불치의 병에 걸려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며 삶의 소망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왕인 그는 생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앗수르의 침공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위기를 극복했듯이 자신의 생사문제도 기도로 해결하려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응답을 받았고 해의 그림자가 십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중천에 떠있던 태양이 하루 종일 멈춘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로 인해 히스기야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 동안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앗수르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보호하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좌절하지 말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 기도 / 나의 게으름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부와 에바다부에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15 (화) 히스기야의 감사 찬양

찬송 / 488장 본문 / 사 38:9-22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38:20)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질병으로 고통 당하며 멸망의 구덩이로 향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앙망하며 슬피 울며 주께 의지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치료하여 달라고, 살려 달라고 할 때에도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평안을 주려 하심이며, 주께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사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지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진정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으며, 주께 감사할 자도 살아 있는 자가 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모든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와 지혜를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생명의 원천되신 하나님을 향해 종신토록 감사와 찬양을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도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 기도 /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교 사역지의 현지인들이 변화되어 구원자, 치료자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히스기야의 교만 (수) 16

찬송 / 349장 본문 / 사 39:1-8절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39:2)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히스기야가 그의 생애에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병이 나았다 함을 듣고 바벨론의 왕인 므로닥발라단이 축하하는 글과 예물을 사절단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상당히 기뻐하였고 바벨론 왕의 특사들에게 궁중의 금은 보화와 귀한 기름을 보여주고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귀중하고 좋은 것들은 모두 그들에게 자랑하며 자신의 부와 권세를 과시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행동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히스기야가 자랑하던 모든 보물들이 얼마가 지난 후에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어 남은 것이 없고 후손들 중에 몇 명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 왕궁에서 일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부르짖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또한 응답받아 고침받고 난 뒤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그였지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자랑치 못하고 인간의 부귀영화만을 자랑하므로 큰 실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감사하며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범죄케 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일줄 아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섰다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을 통해 세워지는 촌락 개척교회와 중고등학교를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17 (목)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

찬송 / 234장 본문 / 사 40:1-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사 40:8)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붊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 40:7) 여기서 모든 육체는 인생을 말하며, 그 모든 아름다움은 인생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운은 바람을 말합니다. 팔레스틴에 부는 바람은 화초를 시들게 합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은 본질적으로 풀, 꽃과 같습니다.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이 시듭니다. 들의 꽃과 풀은 강하고 뜨거운 바람에 시들어 버립니다. 이와같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문화나 유행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주후 303년에 성경을 모두 불태우고 신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소각하는 장소에 이런 비문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사라지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 즉위한 콘스탄틴은 '이 표시(십자가)로 승리'라고 써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지만 성경은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의 위치를 고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은 지금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수록 좋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 기도 /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속에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통하여, 로큰놀과 헤비메탈, 랩 등의 음악으로 청소년을 유혹하고 파괴시키는 독일의 모든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금) 18

찬송 / 40장 본문 / 사 40:9-17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40:12)

흔히 이사야서는 제5의 복음서라고 불리웁니다. 오실 메시야를 예언합니다. 이와함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오실 메시야에 대한 희망찬 예언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너무 잘 어울리는 주제입니다. 본문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펴봅시다.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과 저울의 적은 티끌과 같습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습니다.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조금은 알 것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망망대해를 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넓고 깊은 세계를 알 것입니다. 온 세상이 떠들고 소동하지만, 그것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땅에 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보살피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겸손히 행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 기도 /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으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의 영이 전도대상자의 모든 심령 속에서 떠나가게 하소서.

19 (토) 우상의 허무함

찬송 / 40장 본문 / 사 40:18-26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40:19)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그 분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22절).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이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이 만든 우상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은 이런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26절). 그런데 왜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로 막았습니다. 먼저 죄의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찬송가 40장(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십시오. 1,2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3절에 가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연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를 바로 바라보는 눈은 십자가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상은 허무한 것입니다. 메뚜기 같은 인생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 기도 / 이 민족이 우상숭배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저들의 눈이 떠지며 귀가 열리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주일) 20

찬송 / 394장 본문 / 사 40:27-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40:31)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나아가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같이 생각될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강대국의 침략과 이에 따른 고통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내 사정과 내 원통한 것을 하나님도 알지 못하며, 혹시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냐"하는 의구심 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28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생활로 인한 어려움이나 대인관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상황에서 조급해지기도 하고 의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하여 지쳐있을 때에 여전히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힘을 주시고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고 피곤할 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을 통하여 물질의 풍요와 안락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21 (월)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찬송 / 539장 본문 / 사 41:1-7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41:4)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았으며, 잠시 동안 신앙의 슬럼프를 겪기도 하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영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과 권능으로 하신 것입니다. 섬들을 향하여, 민족들을 향하여 창조주의 위엄으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신 약속입니다(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명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계십니다(4절). 즉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야 만다' 라고 먼저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분은 아닙니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고,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영영히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사랑으로 다시 불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굳게 믿고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가 이번 안식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재충전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을 이루게 하소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화) 22

찬송 / 463장 본문 / 사 41:8-16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41:10)

불확실한 위기의 상황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담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확신의 말씀이 사람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더욱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종(하인)은 주인이 책임지며, 택함받은 사람은 그 택한 자가 책임집니다. 벗(친구)은 우정 때문에 그 친구가 도와주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 "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침략하고 싸우던 세력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택한 자이시며,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수 많은 사람들 중에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친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연약한 친구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직접, 간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절벽도 그 분에게는 높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16절). 아멘!

▶ 기도 /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수 목사(수리남)의 사역으로 현지인들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지시며 범죄자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23 (수)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찬송 / 382장 본문 / 사 41:17-29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41:17)

하나님은 열강들의 세력 틈바구니 속에서 가장 약하고 쓸모없고 천대받는 벌레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15,16절).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광야생활처럼 가련하고 주리고 목마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지만, 이제 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와 다릅니다. 이젠 더 이상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지역에서 물이 나오고 음식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 산이 강으로 바뀌며 광야가 호수로 바뀌고 척박한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이 푸른 숲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옥토로 바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의 고삐를 잡고 계시며 강한 자를 약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거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소송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능력이 있으면 앞으로의 일을 정해 놓고 그 일을 뜻대로 이루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는 힘이 자신들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언은 할 수 있겠으나 그 예언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 뿐이니라"(29절)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며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 기도 / 모든 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유병세 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일본인 97%가 800만의 헛된 우상을 섬기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돌이키게 하소서.

나의 종 내 기뻐하는 사람 (목) 24

찬송 / 96장 본문 / 사 42:1-13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즉 내가 네 손을 잡아 ……』(42:6)

이사야 42장은 이사야 40-66장에 나오는 네 다섯 개의 '종의 노래' 가운데 첫번째 것입니다. 이 종의 노래는 이사야 52,53장에서 그 절정에 도달합니다. 이 종의 노래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러 종들이 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는 그 구약의 종들은 모두 이 예언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늘 소리가 납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손해를 보게 되고 강자의 이익을 위해 약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 다릅니다. 그는 선한 일을 시작한다는 선언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길을 만든다는 구실로 상한 갈대를 이리저리 쳐버리지 않고, 새롭고 환한 불을 키겠다고 까불까불 하는 호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조용하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예수님처럼 조용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며, 이방 백성의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앎으로 겸손을 배우며 섬기는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이기성 · 박정아 박정아 평신도 평신도 선교사(호주)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25 (금) 소경들아 귀머거리들아

찬송 / 458장 본문 / 사 42:14-25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42:18-19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루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듣고 보라고 아무리 말하여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셨습니다. 아프리카의 동물보호자들이 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동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 먹이를 주고 보호하려고 초지에 불을 놓아 동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사방에 불을 질러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도움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에 타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렇게 미련하고 저렇게 둔한 자들은 없다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길이 있는데 사방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그 불이 이 제 옷에 옮겨 붙어 살이 타들어가지만 깨닫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들이 몰아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이 계속해서 몰아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줄 알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밝히 보게 하소서. 김형선 · 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의 사역을 통하여 뉴질랜드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 깨어져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토) 26

찬송 / 94장 본문 / 사 43:1-13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43:1)

사람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로 찾고 있을까요? 거의 다 틀리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머물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는 비결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첫째,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1절). 사람은 스스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진화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나를 원하신 분이십니다(1절). 인류의 구원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국가적으로 구원과 해방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데 있습니다.

셋째,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십니다(1절).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 주시는 영광스런 존재들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이 부르심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넷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4절).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떠도는 사랑은 거의가 이기적인 사랑이요 계산적인 사랑이요 잠시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전쟁과 내란이 없고 세계를 위해 기도, 구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주소서.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일본)의 구체적인 사역의 준비를 통하여 일본의 경제력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게 하소서.

27 (주일) 자원하는 신앙생활

찬송 / 71장 본문 / 사 43:14-28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와 하였으며』(43:22)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생활이 어떠하십니까? 부담이 되고 힘이 드십니까? 감사하고 기쁘며 즐겁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22절). 성경 전체를 볼 때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대화로서 끊어져서는 안될 것이었습니다. 성소의 향단과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지상사역을 하실 때 기도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괴로움으로 여겼습니다(22절). 왜 그랬을까요? 이는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모든 백성에게 ……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왕상18:21)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과 세속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뜨뜨미지근 하지 말고 뜨거워져야 하겠습니다. 광야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으나 자원하여 예물을 기져왔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살펴봅시다. 과연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헌금, 봉사, 전도, 사명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 기도 / 400만의 장애인이 복음화와 그들을 위한 기독교 복지 센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 (월) 28

찬송 / 276장 본문 / 사 44:1-9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44:1,2)

본문에 신앙성장의 모습이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장성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야곱의 상태입니다(1절).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 경쟁하고, 지기를 싫어하는 성품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꾀가 많고 방법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1절). 야곱은 드디어 진퇴양난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을 수 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생사의 기로입니다. 이때에 그는 결사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창 32:26) 하고 죽기살기로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매달리는 자를 싫어하거나 귀찮아 하지 않고 오히려 귀여워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목숨 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셋째, 여수룬의 상태입니다(2절). 뜻은 '의로운 자'입니다. 신앙의 자세가 온전하다면 이제 언행심사가 의로와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물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입니다. 이신칭의처럼 이신성화입니다. 십자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그대로 주를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 기도 / 4만 교회 1200만 신자들이 믿음으로써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2월 한 달도 함께 하신 하나님 3월에도 함께 하소서.

구 역 공 과

제 5 과
목사와 교사의 사명

· 성경본문 : 에베소서 4:1-16
· 중심요절 :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 찬 송 : 278장, 356장

1. 서 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후에 교회로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종종 다툼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의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를, 교회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러나 획일적이지 않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각자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다양한 은사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 크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과 더불어 팀웍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 누군가가 그 일까지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몸과 유사한 기능이 있어서 교회 견고하게 세우는데 필요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찮은 것이 인간의 몸을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데 다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등지에 세워진 교회들은 아직 체계적인 교리를

갖지도 못하였고 행정조직도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안에서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아픔을 당하고, 효과적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데 큰 장애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다양한 주관적인 체험들,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질서있게 활용되지 못함을 깨닫고 성도의 하나됨과 다양한 사명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더욱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성도들간에 지체의식을 가지고 질서유지와 개인의 독특성이 다양하게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본문관찰 및 토의

1)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한 소망 가운 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무엇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2-4절)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데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자세히 적어보고, 함께 나눠보십시오.

2)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3가지로 나누어서 기록하십시오(12절).

3)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구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합니까?(13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자기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4)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함께 성장하며 무엇 안에서 스스로 세워 주어야 합니까?(16절)

함께 연합하여 사역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연합할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적어 보고, 함께 나눠보십시오.

4. 삶의 적용

1)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며,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구역의 부흥과 교회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적용해봅시다.

2) 지금까지 구역과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나의 은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나누고,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돕기 위하여 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봅시다.

5. 결 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역에, 교회에, 삶의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합시다. 각자가 뜨거운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역의 활성화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합시다.

제 6 과
새 사람의 새 생활

· 성경본문 : 로마서 13:8-14
· 중심요절 :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4)
· 찬　송 : 493장, 488장

1. 서 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와 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의 관점은 이 세상을 장미꽃으로 화려하게 꾸며 놓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거꾸로 바라보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거꾸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평탄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길이고, 협착하고 좁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매혹적으로 유혹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며,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변혁시키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2. 본문배경 연구

바울 서신들은 대개 전반부에서는 구원의 은혜에 관한 교리를 말하고 후반부에서는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교훈합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

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로마서에서도 앞부분에서는 깊이 있는 구원론을 다루고 이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사회는 매우 퇴폐적이고 향락적이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 당시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성도들은 그런 세속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3. 본문관찰 및 토의

1)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어떠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8절)

네 몸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10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말로 기록하십시오.

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성도들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십시오.

3) 성도들은 죄악의 어두운 밤에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고 오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무엇, 무엇을 행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 내가 이제 끊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하고 묵상해보십시오.

4)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무슨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4. 삶의 적용

1) 하나님의 은혜로 새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제 내가 끊어 버려야 할 어두운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2) 나는 지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남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남을 네 몸 같이 사랑하는 데 방해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보십시오.

3) 내가 지금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5. 결 론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지 맙시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의 밤으로 깜깜해져 간다해도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비춰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속에서 어두움의 죄악된 옛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시다.

제 7 과

예수님의 지상명령

· 성경본문 : 마태복음 28:16-20
· 중심요절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 찬 송 : 257장, 260장

1. 서 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지상명령이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창피하다는 핑계로, 말을 잘 못한다는 핑계로, 그 어떤 이유도 변명되지 않으며,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를 하면 나중에 족히 비교할 수 없는 금면류관 얻게 되고 천군천사들 앞에서 영광과 존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성도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의무인 동시에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다함께 지상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악의에 찬 유대인들

은 제자들이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해석해 주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는 본문을 통하여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의 장엄한 명령을 기록함으로 그의 부활하심을 확증하고, 성도의 삶의 중심에 놓여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내게 부탁하신 것"을 전하는데 자기의 전 생애를 받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3. 본문관찰 및 토의

1) 열한 제자들은 어디로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뵈옵고 경배하였습니까?(16절)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사도행전 1장 12절을 근거로 하여 찾아보십시오.

2)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18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살핀 후에 그 내용을 빌립보서 2장 9-11절과 연결시켜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3)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19-20절).

4)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말로 기록해보십시오(20절). 약속하신 그 내용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적어보십시오.

4. 삶의 적용

1)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구역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구역모임에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방법을 토의해보십시오.

2)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부족한 삶을 회개하고 나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함께 손잡고 기도).

3) 시급히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적어서 구역장에게 제출하고, 그 이름을 놓고 합심기도 하십시오.

5. 결 론

우리들은 항상 무엇이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친척과 이웃과 친구를 두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큰 잘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시다.

제 8 과
열두 제자의 파송

· 성경본문 : 마가복음 3:13-30절
· 중심요절 :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막 3:14-15)
· 찬 송 : 514장, 370장

1. 서 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을 전수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효과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선택하여 함께 동거하면서 양육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충현교회는 일찍부터 이런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교회 4대 목표중에 가장 첫번째가 '천국일꾼 양성' 입니다.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향한 한국 교회의 방향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 사역일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이루는 것은 헌신된 주의 제자를 양성하여 그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에 촛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오늘에 필요한 예수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이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충성된 사람들을 선택하여 양육과 훈련을 할 필요성을 가지셨습니

다. 예수님은 갈릴리호수 근처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신 후에(눅 6:12) 12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12제자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형성하였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이 새 이스라엘을 준비할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서 네 명은 어부였고 또 한 명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세금징수원이었으며, 또 한 사람은 과격한 독립운동을 벌이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나머지 6명의 제자들에 관해서는 특별히 알려진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3. 본문관찰 및 토의

1)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4,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3가지로 요약하여 기록하십시오.

예수님은 3년이라는 극히 제한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밀도있는 가르침을 주셨야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14절)

2)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줄 때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을 지폈다하며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까?(22절)

심지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누가 그를 붙잡으려 나왔습니까?(21절)

3)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를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한다고 하였습니까?(29절)

성령을 훼방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본문 배경을 근거로 토의하시고, 내가 혹시 성령의 사역을 훼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보

십시오.

4)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당신을 찾는다고 제자가 알려 주었을 때 예수께서는 어떠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습니까?(35절)

예수께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고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고 했을 때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혈통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4. 삶의 적용

1)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예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청지기가 됩시다.

2)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하여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고 성령께서 나를 자유롭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철저히 드립시다.

3)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혈통에만 매이는 성도가 되지 말고 성도의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5. 결 론

예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여 함께 거하게 하시고,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몰려 왔을 때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식은 오늘 우리의

삶에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더욱 양육과 훈련으로 무장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며,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훌륭한 주의 제자가 됩시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1) 찬　　송 ····· 다 같 이
2) 성경봉독 ····· 사 회 자
3) 메시지 낭독
4) 기　　도 ····· 다 같 이
5) 주 기 도 ·····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1994년 2월호 · 발행인/신성종 · 편집인/우기전
발행처/충현교회 출판부 · 등록번호/제9-110호(1977. 10.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전화/552-8200 (비매품)